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와 위기 리더십

오 창 룡 | 서울대학교

본 논문은 위기 리더십의 측면에서 사르코지가 주도한 이미지 정치의 영향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르코지는 언론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명료하고 속도감 있는 화법을 보였으며, 법과 질서를 보호하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형성했다. 나아가 성장과 효율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 이미지로 대선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잦은 미디어 노출과 국정 전반에 독선적으로 개입하는 통치 스타일은 임기 내 내 권위주의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르코지의 정치 스타일 이외에 별도의 비판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해왔다. 사르코지는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헌법이 명시한 권력 자원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정권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르코지가 기존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치의 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국익 수호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르코지의 위기 리더십은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회통합 의무를 배제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위기 리더십이 미디어를 매개로 남용되는 경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주제어: 니콜라 사르코지, 이미지 정치, 위기 리더십, 일차 정의자

I. 서론

현대 정치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정치 전면에 부각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후보자 이미지가 정당 고유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집권한 지도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은 강한 리더십의 주요 자원으로 간주된다. 과거와 달리, 정치인 이미지는 핵심 관리 대상이 되었으며, 언론 및 여론에 대처하는 능력은 정치적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연예인과 다를 바 없는 대중적 인지도가 권력 요소로 기능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이미지 형성 혹은 관리 능력은 실질적인 정

책 수립 및 집행 능력과 거리가 있고, 과도한 인물중심 정치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르코지는 이미지 정치의 성공과 그에 대한 우려라는 양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인이었다. 사르코지는 내무장관 역임시기(2005~2007년)부터 언론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명료하고 속도감 있는 화법을 보였으며, 법과 질서를 보호하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형성했다. 나아가 성장과 효율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 이미지로 대선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잦은 미디어 노출과 국정 전반에 독선적으로 개입하는 통치 스타일은 임기 내내 권위주의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일례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0년도 보고서는 프랑스를 이탈리아와 함께 '완전 민주주의'에서 탈락한 '결손 민주주의' 수준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정당에 대한 신뢰 하락, 민주주의 지지 수준 저조, 정치 엘리트와 시민들 간의 괴리 증대 등의 원인과 함께, 사르코지의 '독재적인'(autocratic) 통치 스타일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훼손했다고 지적한다(The Economist 2010).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정치 스타일만으로 한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를 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도한 인물 중심의 정치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하게 따질 수 있는 기준은 모호하다. 특히 사르코지는 헌법이 명시한 권력 자원에 의존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역대 제5공화국 대통령들이 남용하여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긴급권(제16조), 국민투표회부권(제11조), 신임연계투표권(제49조)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행정개혁 일환으로 2008년 제24차 헌법 개정을 단행하여 의회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을 대거 포함시켰다. 따라서 권력집중을 제한하는 제도화가 진행되었음에도 강한 리더십의 복원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사르코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상당수의 문헌들은 권위적 스타일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외에,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명시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기 리더십'(crisis leadership)의 관점에서 사르코지의 이미지 정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 리더십은 자연재해, 전쟁, 경제공황과 같은 국가위기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함께, 정부의 '정당성' 및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 리더십으로 규정할 수 있다(Boin et al. 2005; 2008). 위기에 직면한 사회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며, 합의적 의사결정보다 지도자 결단력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그러나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위기 리더십이 문제해결 이후에도 남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도자가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삼지 않고, 권력집중을 위해 위기를 재규정하고 활용하는 경우 민주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하에서는 이미지 정치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의제설정과 책임공방 차원에서 사르코지 리더십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II. 이미지화된 위기 리더십의 등장

스코로넥(Stephen Skowronek 1993, 18)은 국가지도자의 권력을 “주어진 임기동안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자원의 전략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권력 행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의 의미를 넘어 지도자의 권력 행사를 위한 주요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Heffernan 2006). 대통령제의 ‘수사적’(rhetorical) 특징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여론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아니지만 현대 대통령직의 중대한 권력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Ellis 1998, 1; Tulis 2007, 59). 최근 연구들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별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정당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Dalton and Wattenberg. 2000). 미디어의 발전으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이해하는 인지과정에 변화가 발생했고,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투표 및 참여 행태가 가속화되었다(Garzia 2011).

이렇듯 미디어를 기반으로 지도자 이미지가 정치의 전면에 부각되는 현상은 현대정치的新로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사례 역시 전과를 타는 대통령의 ‘말’과 ‘이미지’가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사르코지가 당선되었던 2007년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후보자들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Boy and Chiche 2009, 101-2). 사르코지의 국정운영은 ‘말’을 넘어서는 지도자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을 부각시켰고, 그가 채택한 언론 전략의 차별화된 효과에 주목하게 하게 했다. 쿤(Raymond Kuhn 2010, 370)은 미국, 영국, 독일의 비교연구를 시도한 페취(Barbara Pfetsch 2008)의 연구를 토대로, 프랑스에서도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미디어 중심적’(media-centered) 전략이 보편화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트와 틴달(Paul ‘t Hart and Karen Tindall 2009, 269-274)은 연예인 출신 인사가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아니라, 역으로 정치인이 연예인처럼 언론에 노출되는 현상을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사르코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하였다.¹⁾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언론과 학자들은 사르코지 리더십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개념들을 경쟁적으로 생산해냈다. 프랑스 언론은 사르코지의 직설적인 소통방식과 전 국정영역에 개입하는 통치스타일을 지칭하기 위하여 ‘초대통령’(hyper-president)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Maigret 2008). 파리정치대학의 뒤하멜(Olinier Duhamel 2008)은 연예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언론에 등장하면서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르코지의 통치스타일을 ‘스타코지즘’(starkozysme)이라 칭했으며, 호앙-응옥(Liem Hoang-Ngoc 2008)은 사르코지의 국정운영을 레이저노믹스에 빗대어 ‘사르코노믹스’(Sarkonomics)라 일컬었다.

하지만 최근 사르코지 이미지 정치가 포함하는 보다 특수한 맥락은 그의 리더십이 드골의 영웅화된 ‘위기 리더십’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²⁾ 연구자들은 2000년대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실업률 증가, 2002년 대선에서 극우세력 확대, 2005년 유럽헌법 승인안 부결과 파리 외곽지역 폭동 등이 사르코지 집권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휴렛(Nick Hewlett 2007, 407-9)은 사르코지가 거침없고 단호한 이미지로 위기와 혼란에 직면한 대중에게 단기간 내에 크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뮈쏘(Pierre Musso 2008)는 사르코지의 권위에 대한 호소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구원자의 이미지가 영웅적 리더십의 전통 위에 효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르코지는 이

1) 사르코지의 리더십은 프랑스 내에서 ‘정치의 피플지화’ 현상(peopolisation)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정치의 피플지화’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주요 보도 대상으로 삼는 타블로이드 판 신문인 피플지(People 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매체화’(mediatization) 혹은 ‘연예인화’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치보다는 정치인의 사생활을 다룬 대중적 저널리즘의 확산을 의미했는데, 프랑스에서는 2002년 대선 시기에 정치인과 그 주변인물들이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 이 개념은 정치인들의 사생활이나 스캔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폭로하는 경우와, 정치인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동일한 방식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의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지칭하게 되었다(Dakhila and Lhéruault 2008).

2) 드골(Charles De Gaulle)의 리더십을 분석했던 호프만(Stanley Hoffmann)은 베버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개념을 수정하여, 일상적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등장하는 ‘위기 리더십’(crisis leadership)이 프랑스의 독특한 권위 형태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관료적 리더십’이 비인격적인 규칙(impersonal rules)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반면, 위기 리더십은 사적(personal) 형태의 권위로 사회변동과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취지를 갖는다고 평가했다(Hoffmann 1967, 114-7). 초대 대통령인 드골은 레지스탕스에 직접 참여하였던 국가 영웅이었으며, 공산주의와 전쟁, 정치 불안 등의 환경은 그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Knapp 1994, 1-3).

민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내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르코지는 직접 이민 문제를 다루는 위치에 있었으며, 불법체류를 제한하고 선택이민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다(박선희 2010, 199-202).

따라서 단순히 사르코지가 주도한 인물중심 정치와 함께 그 내용에 해당하는 위기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위기 리더십에 포함되는 책임 공방의 문제이다. 위기가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자의 과실, 무관심, 규칙 위반 등 체제 내적 요인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위기의 사후 관리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생존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남게 된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관련 정치인들은 대체로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Boin et al. 2005, 5; 2008, 19). 둘째, 위기 리더십이 포함하는 의제설정 주도권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는 위기 쟁점에 대한 일차적 해석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미디어 자체는 뉴스의 쟁점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으며, 미디어를 ‘공인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이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는 것이다(Hall et al. 1978, 58-9). 셋째, 관리대상이 되는 위기는 객관적 조건과 구성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위기는 객관적 속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 위기를 실제로 겪은 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구성되므로, 위기를 둘러싼 갈등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갈등을 수반한다(Hay 1995, 87).

III. 혁신과 국가수호 이미지의 차별화

1. ‘단절’과 효율의 이미지

정치인 사르코지의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은 2007년 대선 캠페인 슬로건이었던 ‘단절’(rupture)이었다. 사르코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과거 정치노선과 결연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사르코지는 2006년 5월 9일 님(Nîmes) 연설에서 “지난 30년간, 프랑스는 크게 변화하였으나 정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를 이 시대에 맞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해 “관료제와 부채의 무게에 짓눌리고, 거대한 재분배 기구에 질식되고, 봉건제와 코포라티즘에 침식당한” 국가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사르코지의 출신배경과 정치 이력은 차별화 전략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는 형

가리 이민자 2세대이자 그랑제콜이 아닌 일반 대학 출신 정치인이었음에도, 1983년 28세의 나이로 뇌이유 쉬르 센(Neuilly-sur-Seine) 지역의 시장에 당선되면서 차세대 우파 지도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주류 정치집단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드의 이미지는 그의 정치 라이벌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이 명문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점과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제5공화국 정치를 주도한 국립행정학교 출신 엘리트들에 대해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Brochet 2011, 28).

과거의 정치와 스스로를 구별하려했던 시도는 사르코지 담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형식에 반영되어 있다. 사르코지와 시락의 담화 내용을 비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국가, 공화국, 유산, 역사, 전쟁 등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시락보다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을 선호하였다. 시락은 국제 관계 및 국가 행정과 관련된 피상적인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한 반면, 사르코지는 범죄, 폭력, 사회정의 등 사회질서유지와 관련된 개념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시락은 사회 안전문제를 추상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르코지는 이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명시하는 특징을 보였다(Haegel 2011, 68). 사르코지는 역대 대통령들 및 2007년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선거캠페인에서 상대적으로 더 짧은 문장을 구사하였으며, 더 제한된 수의 어휘를 사용했다(Calvet and Véronis 2008, 28-32; Labbé and Monière 2008, 451-3). 사르코지가 2007년의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의 대부분은 본인을 지칭하는 '나'를 주어로 하는 저작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이었다. 그는 『나의 계획: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Mon Projet: ensemble tout devient possible*)에서 '권위, 정직, 우애, 프랑스의 영광' 등이 '자신'의 가치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소속정당인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대중운동 연합)의 강령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기조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사르코지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에도 끊임없이 언론에 등장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는 언론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에 강한 자신을 보여 왔으며, 언론노출이 담보하는 의제 설정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Schmid 2010, 109). 사르코지는 집권 직후 2년여 동안 계속해서 저녁 뉴스의 첫 보도에 등장하였는데, 이는 언론 노출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이려 했던 미테랑 및 시락 전 대통령과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점이었다(Khun 2010, 368). 논자들은 대체로 사르코지가 대통령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켰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는 좌파에게 어울릴만한 단절과 변화라는 단어를 재구성하였으며, 역대 대통령들을 '숙명론자'로 규정하고, 이와 대비시켜 자신을 '의지론자'로 드러내는 데에 성공하

였다(Musso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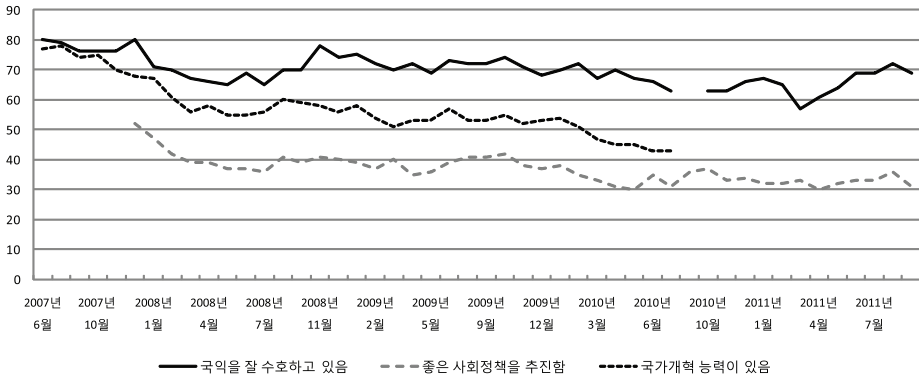
사르코지는 성공과 효율을 상징하는 근면한 ‘사장’ 혹은 성공한 ‘부자’의 이미지로 언론에 등장하였다. 취임 직후 화려하게 차려입고, 초호화 식당에서 유명인사들과 파티를 여는 방식으로 부자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를 영웅의 이미지로 전환시켰다(Musso 2010). 이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서 일탈하는 변칙적인 이미지 형성을 시도했다.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사르코지의 주된 이미지는 국정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조깅하는 모습, 승마나 수영 등의 여가를 즐기는 모습, 호화 파티를 여는 모습, 연예인과 어울리는 모습 등이었다. 즉, 스스로를 일종의 스타 연예인처럼 부각시키는 방식이었다. 모델 출신 카를라 브루니(Carla Bruni)와의 세 번째 결혼을 임기 중에 치룬 사건은 대통령 스스로를 ‘연예인화’하는 데에 분명한 기여를 하였다(Duhamel and Field 2008).

2. 국가 수호자 이미지의 대중적 수용

언론 노출을 통해 사르코지가 형성하고자 또 다른 이미지는 현대화된 국가수호자의 모습이었다. 1993년 파리 교외 뇌이이(Neuilly) 시의 한 유치원에서 인질극을 벌인 범인을 당시 시장이었던 사르코지가 직접 설득했던 일화는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된 바가 있다. 그는 범죄 및 사회불안 문제에 대응하여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보호하는 ‘경찰국가’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고자 했다(Musso 2010). 사르코지는 이민자 문제를 국가 차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며 이를 직접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Hewlett 2011, 45). 그는 2005년 내무장관 시절 파리 근교의 이민자 폭동에 대해 “젊은 인간쓰레기(racaille)를 쓸어버려야(karcher) 한다”는 과격한 발언으로 대중들의 큰 이목을 끌기도 했다(Padis 2007).

대중들이 사르코지의 이미지를 어떠한 형태로 수용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국가 수호자의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수용됐던 측면은 관련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파리마치-이포프(Paris Match-Ifop)가 실시하는 정례 여론조사에는 대통령 이미지에 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중들에게 수용된 사르코지 이미지의 변화를 ‘좋은 정책 시행’, ‘국가 개혁’, ‘국익 수호’의 세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그림 1> 참고).

먼저, “좋은 사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응답은 임기 후반까지 시종일관 30%대의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사르코지는 임기 초반부터 보편적인 공감대



출처: Le tableau de bord politique, Paris Match-Ifop 월례 설문조사.

(http://www.ifop.fr/?option=com_job_offer&id=49; 검색일: 2012. 4. 11)

주: 2007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대통령의 이미지’(Les traits d’image associés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항목의 설문 내용을 종합함.

〈그림 1〉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미지에 관한 설문

속에서 사회 통합에 힘쓰는, 고전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가 개혁 능력이 있는가?’라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데, ‘개혁가’로서의 사르코지 이미지는 2007년 70%대에서 출발하여 2010년 40%대로 꾸준히 후퇴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과거 정치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단절’을 표방한 사르코지의 전략이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잃어갔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그가 혁신 이미지 측면에서 의도한 바대로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익수호자’ 이미지는 임기 말까지 변함없이 강하게 유지됐다. 전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점을 기록하였던 2011년 4~6월의 시기에도 사르코지가 “프랑스의 국익을 잘 수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은 60%대를 상회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점차적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수호자’로서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꾸준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국익수호’와 ‘좋은 사회정책’의 두 이미지가 어떠한 직업과 정치 성향의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는가를 설문 자료를 통해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은 사르코지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2008년 12월과 최저 수준이었던 2011년 5월 이미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지지정당별, 직업별로 종합한 내용이다. 전반적인 특징은 시간차에 따른 변화보다는 지지정당별, 직업별로 대통령의 이미지가 매우 다르게 수용된다

〈표 1〉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미지 수용(지지정당별 및 직업별 비교)

(단위: %)

	국익수호자		좋은 사회정책	
	2008년 12월	2011년 5월	2008년 12월	2011년 5월
지지정당별				
극좌	54	57	22	22
공산당(PCF)	41	43	19	21
사회당(PS)	62	52	20	12
녹색당	66	56	32	21
중도우파(Modem)	83	62	29	27
UMP	96	89	71	68
국민전선(FN)	68	62	40	31
직업별				
소상공인	70	59	44	41
자영업·경영직	77	65	39	28
중간관리	66	52	23	25
사무직 노동자	62	56	42	23
생산직 노동자	71	60	37	35
은퇴·연금생활자	81	75	49	53
실업자	73	61	43	33

출처: Le tableau de bord politique. Paris Match-Ifop 월례 설문조사(2008년 12월 및 2011년 5월).

(http://www.ifop.fr/?option=com_job_offer&id=49; 검색일: 2012. 4. 11)

는 점이다. 먼저 국익수호의 이미지는 극좌정당 및 공산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향의 응답자들에게 고르게 수용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특히 UMP 지지층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수호자 이미지는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인 경영직 및 연금생활자 뿐만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좋은 사회정책’ 항목의 경우 UMP 지지자들이 대통령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성향의 응답자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직업군에서는 역시 연금생활자들이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무직 노동자들은 이 항목에서 가장 큰 폭의 환멸을 보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첫째, 사르코지가 반대정과 지지자들에게도 ‘국익수호’의 능력을 크게 어필했으며, 둘째, 그의 이미지가 UMP의 정통 지지층을 꾸준히 결집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IV. 책임회피와 극우 유권자 흡수 전략

1. 위기의 일차 정의자(primary definer)로서의 대통령

이상에서 사르코지 이미지 정치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점은 그의 이미지가 내포하는 위기 리더십의 측면이다. 사르코지의 능력 있는 국가 수호자 이미지는 사실상 지도자의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다. 그는 2000년대 사회 현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이미지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효율적인 위기 해결능력을 가시화하여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사르코지의 ‘단절’ 전략은 과거 위기에 대한 책임회피 의도를 담고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무능하고 기생적인 정치행태, 약속불이행과 기만의 정치행태와 단절”하겠다고 주장했다. 주 35시간 근무제 등 사회당 집권기의 정책들이 일차적인 공격 대상이었으나, 전임 대통령 시락의 국정운영 방식도 단절의 대상에 포함됐다(Szarka 2009, 409). 시락의 두 번째 임기(2002~2007)는 프랑스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된 기간이었다. 2002년 이후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63.9%까지 증가하였다. 시락이 1995년 이래로 주창해 온 ‘사회 균열의 극복’이라는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실업률 억제 역시 집권 여당이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였으나 2006년 평균 실업률은 8%대에 달하였고,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0%까지 상승했다(Levy et al. 2008; Hewlett 2007). 따라서 2007년 대선은 집권 정당이었던 UMP에게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는 시점이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가 직면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우파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같은 정당의 시락(Jacque Chirac)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선거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었다.³⁾

다른 한편, 사르코지는 위기의 책임을 1981년부터 14년간 집권하였던 사회당 정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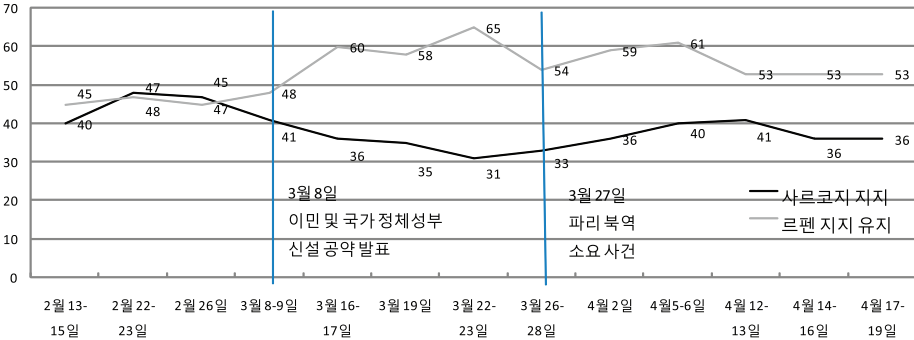
3) 사르코지는 공화주의적인 가치에 집착한 시락이 결국 경제 개혁에 실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우파의 재건을 주창하였다. “나는 프랑스 우파의 강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교혼을 주는 척하는 것을 좋아했던 좌파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파는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우파는 조용한 공모자로 비난받으며, 정체성의 상당부분을 잃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 우파는 전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유연했으며, 현대적 이념의 관점에서는 너무 경직되었다”(Sarkozy 2006, 17; Haegel 2011, 65에서 재인용).

돌리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는 집권 전부터 좌파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는 68운동의 가치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국가 정체성 위기의 핵심을 ‘도덕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68년 5월의 가치가 도덕의 반-테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점이다. 사르코지는 68운동의 가치들을 모든 사회악과 위기의 근원으로 묘사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들까지도 68운동의 책임으로 돌렸다. 68운동은 ‘프랑스병’의 원인이며, 전통의 소멸, 권위의 실추, 나아가 자본주의의 비윤리성 모두가 68운동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Hewlett 2011, 65-66; Malière 2009, 382).⁴⁾

사르코지가 국익 수호자 이미지를 통해 위기에 대한 ‘일차 정의자’(primary defin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사르코지는 해결해야 하는 사회 위기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집권 기간 동안 이민자 문제를 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규정했다. 경제침체, 실업, 가계 구매력 하락 등은 해결이 당장 불가능한 추상적인 위기 쟁점인 반면, 안전과 이민자 문제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결 능력을 부각시키는 쟁점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이민사 문제의 권위자인 누아리엘(Gérard Noiriel 2007)은 사르코지의 강경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방송전파를 타는 ‘완화된(soft) 민족주의’가 새로운 문제라 지적하였다. 미디어 발달로 과거와 같이 분명한 형태로 민족주의를 표방할 필요가 없고, 마치 광고 카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Noiriel 2007). 2012년 대선에 임박하여 사르코지의 강경한 반(反) 이민 정책의 화살은 집시 유랑민들에게 돌아갔다. 프랑스 주재 외국 기자들은 이를 “쉬운 타겟에 집중하는 매우 비열한 태도”이며,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르펜의 지지층 일부를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생각”이라 비판한 바 있다. 나아가 “집시가 추방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텔레비전 뉴스로 전송하려는 의도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지 이민자 문제, 특히 집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⁵⁾

4)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직후 68년 5월 운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68년 이후 우리는 도덕이란 단어를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 [...] 68년 5월의 유산은 사회와 정치에 냉소주의를 가져왔다. 금전승배, 단기 이익 추구, 투기와 금융의 과잉은 68년 5월의 가치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라. 왜냐하면 어떤 규칙도, 규범도, 도덕도, 존경도, 권위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가치 있고, 모든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모든 도덕 기준과 가치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도덕을 약화시켰는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거액의 퇴직금과 거액의 연금 수령자, 그리고 약덕 고용주가 판치는 윤리 없는 자본주의를 만들어 내었는가를 보라” (2007년 4월 29일 Bercy 연설).

5) 슈피겔(*Der Spiegel*)의 시몽(Stefan Simons), 타임(*The Times*)의 브렘너(Charles Bremner), 인디



출처: Fourquet(2008, 215)에서 재인용(Ifop 설문).

<그림 2> 2002년 대선 르펜 지지자의 지지 후보 변화(2007년 2~4월)

하지만 사르코지는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들이 직접 경험하는 구체적인 ‘불안’이 자신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였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 ‘사건’들 자체가 사르코지의 정치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였다. 사르코지는 사회 불안을 야기한 사건들에 대해 ‘관용 없는 엄격한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피상적인 말과 원칙보다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으로 지지를 유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대선 직전이었던 3월 27일 파리 북역에서 과도한 검표 문제를 둘러싸고 100여 명의 승객과 경찰이 대치했던 사건이었다. 당시에 위기의 ‘책임’ 공방이 발생했는데, 좌파 후보들은 사르코지가 내무장관 시절에 도입한 과도한 ‘안전’ 정책 때문에 이 소요가 발생하였다고 비판한 반면, 사르코지는 68운동 추종자들이 관용할 수 없는 범죄를 관용해 온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Fourquet 2008, 214-5). 파리 북역 사건은 사르코지가 3월 8일 발표한 ‘이민 및 국가 정체성부’ 신설 공약보다도 르펜 지지층 흡수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드러났다(<그림 2> 참조). 치안사고가 사르코지 지지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2012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11년 중순까지 어떤 후보와 겨루어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대선 한 달 전 툴루즈 지역 이슬람계 용의자에 의한 연쇄총격사건은 사르코지의 지지를 반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르코지는 반 테러리즘 대책을 제시하여 현직 대통령으로서 질서수호 능력을 보이려 했으며, 사건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차 투표 기준 28%

펜던트(The Independent)의 리슈필드(John Lichfield) 기자 인터뷰(Karel 2010).

의 지지를 받은 사회당의 올랑드(François Hollande)를 2%차로 역전하였다.⁶⁾

2. 드골주의 금기의 파기

사르코지가 임기 후반까지 확보하였던 국가 수호자의 이미지는 ‘법과 질서’라는 우파 고유의 가치를 대변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관련된 극우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르코지의 ‘영웅적’ 리더십은 그 원형을 이루는 드골의 리더십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전부터 극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이는 드골주의 정당 기초의 금기를 깨는 것이었다.⁷⁾ ‘사회 균열의 해소’를 주요 정강으로 했던 드골주의의 입장에서 극우파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주의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국민전선(FN)과의 정치적 연합 역시 엄격하게 금기시되어 왔었다. 때때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시락 역시도 ‘극우와의 연대 불가’의 원칙만큼은 주류 우파의 정치전통으로 분명하게 고수했다(Hewlett 2011, 45).

사르코지의 극우 포퓰리즘 수용 전략은 2002년 대선에서 국민전선의 르펜(Jean-Marie Le Pen)이 결선투표에 진출하고 이민자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온 이민자들이 낮은 교육수준과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실업률을 겪으며 실제 사회문제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민정 2007). 국민전선은 1983년 선거에 참여한 이래로 이민자 문제를 실업과 안전 문제와 연결시켜왔으며, 국가정체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극우 정당 지지자들에게 이민과 안전, 그리고 실업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 현안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였다. 2003년의 히잡 착용 논란과 2004년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 제정, 그리고 2005년 파리 외곽 소요가 이어지면서 2007년 대선에서도 이민자 문제는 주요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6) <http://www.sondages-en-france.fr/post/sondage-presidentielle-csa-19-20-mars-2012>, 검색일: 2012. 3. 15)

7) 사르코지는 자신이 극우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2006년 UMP 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강경하게 발언하자마자 사람들은 내가 국민전선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비난한다 [...] 그러나 정확히 그게 맞다. 과거 우리 것이었던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2006년 10월 2일 연설, Marlière 2009, 379에서 재인용).

〈표 2〉 2007년 대선의 유권자 정치성향 설문 결과

(단위: %)

	루아얄 지지자	사르코지 지지자	르펜 지지자
선거 시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실업	30	21	19
범죄	3	13	8
구매력 증가	11	12	6
이민	3	11	35
긍정적인 함의에 대한 평가			
민영화	21	48	29
이윤	42	61	39
이슬람	43	21	8
유럽연합	67	67	32
세속화	83	78	55
개방 정책에 대한 평가			
프랑스는 외국에 더 개방해야 한다.	56	43	13
프랑스는 자국민을 더 보호해야 한다.	27	41	73

출처: Panel Electoral Français. 2007. "Enquete pré-électorale présidentielle 2007." Cevipof-Ministère de l'Intérieur. <http://www.cevipof.com/PEF/2007/recap/R15595-RecapDetVol1.pdf> (검색일: 2012. 3. 11)

사르코지는 이민자와 사회불안 문제를 2007년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탈 때 끊임없이 강도의 위협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프랑스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겠는가?"라는 식의 다소 과장된 주장으로 여론을 주도하였다(Portelli 2009, 41; 2007년 4월 3일 Lorient 연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직전이었던 3월 이민자 유입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 및 국가 정체성부' 신설을 공약하여 비시정부의 명령을 되살리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Marlière 2009, 379). 그러나 사르코지의 강경 노선은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고, 국가정체성부 신설 공약에 대해 국민의 3분의 2가 지지한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Noiriel 2007).⁸⁾

8) 사르코지의 반(反) 이민, 반(反) 이슬람 기조는 임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사르코지는 2010년 7월 담화에서 "우리는 지난 50년간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 이민 정책의 결과를 보고 있으며, 이제 통합의 실패에 귀착하였다"고 선언하고,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이민자들을 경찰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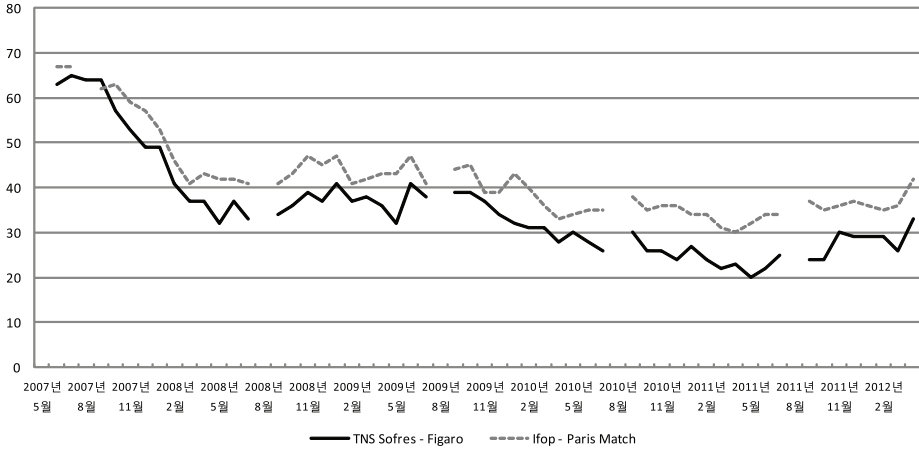
금기를 깨는 극우 포섭 전략은 전통적인 이념적 균열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사르코지가 다양한 성향의 유권자들을 포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표 2>에서 드러난다.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실업 및 범죄, 가계 구매력 하락 등의 사회불안을 프랑스의 주요 현안으로 보고, 민영화와 이윤을 가장 긍정적인 가치로 선호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민자와 이슬람 쟁점에서는 르펜 지지자들과, 유럽통합과 관련된 쟁점에서는 사회당의 루와얄(Ségolène Royal) 지지자들과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특히 ‘시장개방’ 쟁점과 관련하여 루와얄과 르펜 지지자들의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는 것과 달리, 사르코지 지지자들은 극명하게 내적으로 양분된 입장을 보였다(개방 43% 대 보호 41%).

V. 위기 리더십과 민주적 가치의 충돌

2007년 사르코지는 대중들의 큰 관심 속에서 당선되었고, 지지율에 있어서도 높은 성적을 거뒀다. 2007년 대선은 프랑스에서 오랜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한 ‘정치의 회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선거이기도 했다(Mongin et al. 2007, 8).⁹⁾ 사르코지는 2차 투표에서 53.1%를 득표하여 1995년의 시락의 52.6%, 1974년 지스카르 데스탱의 50.8% 기록을 뛰어 넘었다. 실득표율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2.7%의 지지를 얻어, 좌우 대결로 펼쳐진 제5공화국의 역대 선거에서 3위(1965년의 드골의 45.3%, 1974년의 데스탱의 43.8%의 다음임) 성적을 기록했다(Strudel 2007, 459-60). 그러나 영웅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곧 현실로 이어졌다. 뤼하멜(2008)은 사르코지의 정치를 텔레비전 쇼와 다를 바 없는 미디어 정치라 비판하면서, 과도한 이미지 정치로 정치적 담론들이 순간적이고 감성적인 정보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과 탈정치화가 등장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사르코지

헌병 선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지시하였다(2010년 7월 30일 담화). 나아가 2011년 2월의 담화에서 “다문화주의는 유럽과 프랑스에서 모두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새로 건너오는 사람들의 정체성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들을 맞이하는 국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2011년 2월 10일 담화).

9) 역대 프랑스 대선에의 기권율은 다음과 같다. 1965년 15.3%; 1969년 22.4%; 1974년 15.8%; 1981년 18.9%; 1988년 18.6%; 1995년 21.6%; 2002년 28.4%; 2007년 16.2%(Hewlett 2007, 418).



출처: Ifop-Paris Match 여론조사(http://www.ifop.fr/?option=com_job_offer&id=49, 검색일: 2012. 3. 11); TNS Sofres-Figaro 여론조사(<http://www.tns-sofres.com/popularites/cote2/choixdate.php?perso=sarkozy>, 검색일: 2012. 3. 11)

<그림 3> 사르코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변화

의 잦은 언론 노출로 대통령직의 권위가 상실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Schmid 2010). 사르코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08년 이후 급락하여 30%대의 저조한 수준의 지지를 유지했으며, 2011년 중순에는 20%대 초반까지 떨어져 제5공화국 최저 지지율 기록을 세웠다(<그림 3> 참고).

사르코지는 헌법적 권한과 공권력을 남용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무리한 정권 연장을 시도한 정치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지에 의존한 위기 리더십은 다음의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사르코지가 위기 리더십 유지를 위해 언론을 통제할 방식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쿤은 사르코지 임기 중 권위주의를 연상시키는 하향식 언론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대표사례로 2009년 방송법 개정을 들고 있다. 사르코지는 2008년부터 공공성 제고를 취지로 공영방송 단일 체제를 구축하고, 공영방송 광고를 폐지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방송법은 당초 목표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방송국 사장 임명권을 복원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Kuhn 2010, 362). 사르코지가 사적인 관계를 토대로 언론을 통제했다는 점도 비판받아왔다. 그는 정계에 입문한 이래로 거대언론 재벌들과 개인적인 인맥을 형성해 왔었다.¹⁰⁾ 사르코지는 기자들과 대면하면서 “나는 당신들 사장

10) 방송사 TF1, LCI, TF6 등을 소유한 부이그(Martin Bouygues), 파리마치(Paris Match), 주르날

(patron)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vous’ 라는 존칭대신 ‘tu’라는 친근한 호칭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vel 2007). 이러한 태도는 언론과의 관계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언론인들에게는 암묵적이면서도 직접적인 보도 통제 방식으로 이해됐다(Kuhn 2010, 359). 사르코지 특유의 언론 통제는 언론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으며, 그의 이미지 정치 전반을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¹¹⁾

둘째, 사르코지 위기 리더십은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회통합’ 의무를 포기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이미지 정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과 합의를 유도하는 목적보다는, 지지층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사르코지의 담화를 분석한 뤼쑤(Pierre Musso)는 그가 축구경기에서 두 팀이 경기를 치르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정치 지형을 설정하고, 찬반토론의 사회자처럼 하나의 입장을 고르도록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사회 갈등을 극대화하는 화법을 사용하면서, 모든 정치 의제를 자신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Musso 2008; 2010, 38). 사르코지는 모든 언론을 장악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의 독선을 비판하는 여론은 매우 공격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2008년 10월부터 프랑스 전국 서점에서 판매된 14.95유로에 판매된 ‘사르코지 부두 인형’이 높은 인기를 끌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러 시사저널들은 “그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 남자는 위험한가?” “공화국의 불량배” 등의 타이틀을 걸고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시도했고, 각종 대중매체는 대통령에 대한 풍자로 가득 찼다(Brochet 2011, 42-43).

뒤 디망쉬(*Le Journal du Dimanche*)를 발간하고 라디오 방송국 Europe1을 운영하는 라가르데르(Arnaud Lagardère), 라트리뷴 지(*La Tribune*)의 회장 아르노(Bernard Arnault), 피가로지(*Le Figaro*)의 회장이자 상원의원을 역임한 다쑤(Serge Dassault), 방송사 Direct8를 소유한 볼로레(Vincent Bolloré) 등은 사르코지와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인사들이었다. 사르코지의 사적 인맥을 통한 영향력 행사는, 소유한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주도했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전 총리에 비견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Portelli 2009, 113-6).

- 11) 사르코지는 2008년 1월 공개석상에서 리베라시옹(*Libération*)지의 기자로부터 “당신은 권력을 사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를 선거 군주제(monarchie électorale)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공격을 받았다(2008년 1월 8일 기자회견). 그리고 2008년 6월 30일 Frnace3 채널의 ‘19/20’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국경 지대 2만5000명의 불법 체류인 수를 줄이기 위해 몇 명을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적대적 질문을 받고 노골적인 흥분을 드러내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Karel 2010).

VI. 결론

본 연구는 사르코지 리더십 사례에서 이미지화된 위기 리더십이 책임 및 정당성 문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인격화된 형태의 권력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했다. 사르코지는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명료한 화법으로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형성했으며, 연예인과 다를 바 없는 언론 노출을 통해 개인적인 성공과 효율의 이미지를 제시했다. 또한 국익수호와 질서 유지자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로 사회불안 쟁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사르코지의 이미지 정치는 정당 차원에서 보증할 수 없는 상호 모순적인 가치들을 정당이 아닌 일인의 지도자가 종합하는 방식이었다. 좌파 정당들이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선명한 비판지점을 확보하였음에도 분열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던 것과 달리, 사르코지 중심의 우파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지 기반을 유지하였다. 위기에 대응하여 재구성된 성장과 안전의 가치는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우파 전통의 금기를 깨고 극우성향 지지층까지 흡수할 수 있었다.

사르코지의 영웅적 리더십이 일종의 권력 집중을 의미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관성 유지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는 대선 캠페인 단계에서부터 자유주의 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집권 후에는 거대한 반대와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고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하였던 노동, 연금, 교육 분야 등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현실화했다. 그러나 그의 위기 리더십은 사회통합의 차원보다 사회 균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미지와 현실정치 사이의 괴리는 곧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사르코지는 2012년 대선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지 못했고, 1980년대 이후 재선에 실패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 사회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등의 경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패배의 한 원인이었고, 이미지 기반 위기 리더십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1980년대 이후 가장 적은 격차로 탈락한 후보였다.¹²⁾ 선거 1년 전까지 2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사르코지가 결선투표에서 과반에 가까운 48.36%의 지지를 얻은 것은 이미지 정치의 대중적인 호소력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

12) 결선투표에서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81년 3.52%, 1988년 8.04%, 1995년 5.28%, 2002년 64.42%, 2007년 6.12%, 2012년 3.28%.

였다. 2012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이미지에 맞서 사회당의 올랑드에게 ‘미스터 노멀’의 이미지가 투영되었던 것도 지속된 위기 리더십의 반작용이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이미지 관리와 형성 능력은 정치적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자리 잡았고, 인물중심정치는 불가피한 추세다. 아울러 이미지 정치의 과잉이 현실정치에 가져오는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과도한 인물중심 정치가 실제 위기관리와 무관한 위기 리더십을 등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의 이미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국민신투표제적(plebiscitary)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고,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위기 리더십이 남용되는 경우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투고일: 2012년 3월 30일

심사일: 2012년 5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5월 29일

참고문헌

- 김민정. 2007.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세계지역연구논총』 25권 3호, 5-34.
- 김응운. 2010.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체제의 변동: 대통령중심제화의 요인에 대한 고찰.” 『유럽연구』 28권 1호, 147-168.
- 김태수. 2007. “프랑스 대통령제의 특징, 변천 그리고 운영의 메커니즘.” 『유럽연구』 25권 3호, 135-153.
- 박선희. 2010.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국제정치논총』 50권 2호, 193-211.
- 박인수. 2010. “프랑스 제24차 헌법개정 특징과 주용 내용.”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881-908.
- 서병훈. 2008. 『포폴리즘』. 서울: 책세상.
- 전영. 2012. “프랑스 방송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54권, 221-253.
- 정재황·박인수. 2008.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 법제연구원.
- Bazin, François. 2009. “Quatre leçons pour un scrutin.” *Le nouvel observateur* (juin 13).
- Boin, Arjen, Paul 't Hart, and Allan McConnell, eds. 2008. *Governing after Crisis: The Politics*

- of Investigation, Accountability and Policy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in, Arjen, Paul 't Hart, Eric Stern, and Bengt Sundelius, eds. 2005. *The Politics of Crisis: Management Public Leadership under Press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y, Daniel, and Jean Cliche. 2009. "Influence décisive des images." In Bruno Cautrès and Anne Muxel, eds. *Comment les électeurs font-ils leur choix? Le Panel électoral français 2007*. Paris: Presse de Science Po.
- Brochet, Francis. 2011. *Inventaire après rupture: Comment Sarkozy a changé la France*. François Bourin Editeur.
- Calvet, Louis-Jean, and Jean Véronis. 2008. *Les mots de Nicolas Sarkozy*. Paris: Seuil.
- Cossé, Pierre-Yves. 2010. "Nicolas Sarkozy et les réformes." *Esprit* (mars/avril).
- Dakhli, Jamil, and Marie Lhéralut. 2008. "Peopolisation et politique." *Le Temps des médias* 10.
- Dalton, R., I. McAllister, and M. Wattenberg. 2000. "The Consequences of Partisan Dealignment." In R. Dalton and M. Wattenberg, eds., *Parties without Partisan: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hamel, Olivier, and Michel Field. 2008. *Le Sarkozysme*. Paris: Seuil/Presses de Science Po.
- Economist. 2010. "Democracy index 2010: Democracy in retrea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dwards, George, III. 2003. *On Deaf Ears: The Limits of Bully Pulpi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llis, Richard J., ed. 1998. *Speaking to the People: The Rhetorical Presidency in Historical Perspective*. Thomson Shore.
- Fourquet, Jérôme. 2008. "L'Erosion électorale du lepénisme." In Pascal Perrineau, ed., *Le vote de rupture*. Presses de Science Po.
- Garrigou, Alain. 2008. "Le sarkozysme est-il un bonapartisme?" *Le Monde Diplomatique* (février).
- Garsten, Bryan. 2006. *Saving Persuasion: A Defense Of Rhetoric and Judg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Garzia, Diego. 2011.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auses and Consequences on Leader-Follower Relationships." *The Leadership Quarterly* 22.
- Gauchet, Marcel and Michel Winock. 2008. "Une année de sarkozysme." *Le Débat* (septembre-décembre).
- Haegel, Florence. 2011. "Nicolas Sarkozy a-t-il radicalisé la droite française? Changements idéologiques et étiquetages politiques." *French Politics, Culture & Society* 29 No. 3.

- Hall, Stuart et al. 1978. *Policing the Crisis*. Macmillan
- Hart, Paul 't, and Karen Tindall. 2009. "Leadership by the Famous: Celebrity as Political Capital." In John Kane, Haig Patapan, and Paul 't Hart. eds., *Dispersed Democratic Leadership: Origins, Dynamics, and Impl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Hay, Colin. 2005. *Re-Statting Social and Political Change*. Open University Press.
- Heffernan, Richard. 2006. "The Prime Minister and the News Media: Political communication as a leadership resource." *Parliamentary Affairs* 59. No. 4.
- Hewlett, Nick. 2007. "Nicolas Sarkozy and the Legacy of Bonapartism." *Modern and Contemporary France* 15. No. 4.
- _____. 2011. *The Sarkozy Phenomenon*. Societas
- Hoang-Ngoc, Liêm. 2008. *Sarkonomics*. Paris: Grasset.
- Hoffmann, Stanley. 1967. "Heroic Leadership: The Case of Modern France." In Lewis J. Edinger, ed. *Political Leadership in Industrialized Societies: Studie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Karel, William. dir. 2010. *Looking for Nicolas Sarkozy*. Arte Editions. DVD.
- Kernell, Samuel. 1986. *Going Public: New Strategies of Presidential Leadership*. Washington D.C.: CQ Press.
- Kuhn, Raymond. 2010. "'Les médias, c'est moi.' President Sarkozy and news media management." *French Politics* 8.
- Labbé, Dominique, and Denis Monière. 2008. "Des mots pour des voix: 132 discours pour devenir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58.
- Legrand, Thomas. 2010. *Ce n'est rien qu'un président qui nous fait perdre du temps*. Paris: Edition Stock.
- Levy, Jonah D., Alistair Cole and Patrick Le Galès. 2008. "From Chirac to Sarkozy: A New France?" In A. Cole, P. Le Galès, and J. Levy, eds. *Developments in French Politics* 4. Hampshire, UK: Palgrave.
- _____, and Cindy Skach. 2008. "The Return to a Strong Presidency." In A. Cole, P. Le Galès, and J. Levy, eds. *Developments in French Politics* 4. Hampshire, UK: Palgrave.
- Maigret, Éric. 2008. *L'hyperprésident*. Armand Colin.
- Marian, Michel. 2010. "Une hégémonie maintenue sur la droite?" *Esprit* (mars/avril).
- Marlière, Philippe. 2009. "Sarkozysm as an Ideological Theme Park. Nicolas Sarkozy and Right-Wing Political Thought." *Modern and Contemporary France* 17 No. 4.
- Medhurst, Martin J., ed. 1996. *Beyond The Rhetorical Presidency*. Texas A&m University Press.

- Mongin, Olivier, Foessel Michaël, and Marc-Olivier Padis. 2007. "Retour du politique ou nouvelles illusions?" *Esprit* (novembre).
- Musso, Pierre. 2010. "Le président 'télé-réel' d'un État-entreprise." *Esprit* (mars/avril).
- _____. 2008. "Existe-t-il un sarkoberlusconisme?" *Le Temps du Médias* 1. No. 10.
- Padis, Marc-Olivier. 2007. "Manipulation ou saturation médiatique?" *Esprit* (novembre).
- Panel Electoral Français. 2007. "Enquête pré-électorale présidentielle 2007." Cevipof-Ministère de l'Intérieur. <http://www.cevipof.com/PEF/2007/recap/R15595-RecapDetVol1.pdf> (검색일: 2012. 3. 11).
- Paris Match-Ifop. 2012. "Le tableau de bord politique." http://www.ifop.fr/?option=com_job_offer&id=49 (검색일: 2012. 3. 11).
- Pfetsch, Barbara. 2008. "Government news management: Institutional approaches and strategies in three western democracies reconsidered." In D. A. Graber, D. McQuail and P. Norris, eds. *The Politics of News, The News of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 Portelli, Serge. 2009. *Le Sarkosysme sans Sarkozy*. Paris; Grasset.
- Revel, Renaud. 2007. "Sarkozy tient-il les médias?" *L'Express* (mai 30).
- Sarkozy, Nicolas. 2007. "Une démocratie irréprochable" *Le Monde* (mars 8).
- _____. 2006. *Témoignage*. Paris : XO Editions.
- Schmid, Lucile. 2010. "Le sarkosysme, mort de la Ve République?" *Esprit* (mars/avril).
- Skowronek, Stephen. 1993. *The Politics Presidents Make: Leadership from John Adams to George Bush*. Harvard University Press.
- Sondages en France. 2012. "Présidentielle: Nicolas Sarkozy 30%, François Hollande 28%, Marine Le Pen 13.5%." <http://www.sondages-en-france.fr/post/sondage-presidentielle-csa-19-20-mars-2012> (검색일: 2012. 3. 15).
- Strudel, Sylvie. 2007. "L'électorat de Nicolas Sarkozy: rupture tranquille ou syncrétisme tourmenté?"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57.
- Szarka, Joseph. 2009. "Nicolas Sarkozy as Political Strategist: Rupture Tranquille or Policy Continuity?" *Modern & Contemporary France* 17. No. 4.
- TNS Sofres-Figaro. 2012. "Cotes de popularités des Présidents et Premiers ministres" <http://www.tns-sofres.com/popularites/cote2/choixdate.php?perso=sarkozy> (검색일: 2012. 3. 11).
- Tulis, Jeffery. 2007. "The Rhetorical Presidency in Retrospect." *The Critical Review* 19. No 2.
- _____. 1987. *The Rhetorical Presiden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Image Politics in Crisis Leadership: The Case of President Nicolas Sarkozy

Changrhyong Oh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image politics of Nicolas Sarkozy in focusing on the aspect of crisis leadership. After Sarkozy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 was frequently present in the media with a clear and decisive speech style and could form the strong image that he was determinative in protecting law and order and delivered the values for development and efficiency well. However, to be ironical, during his presidency, he came to face the critics against his frequent media exposure and dogmatic style of ruling in overall national politics, which finally led to the return of authoritarianism. The existing studies do not effectively provide the clear criterion on the criticism, except his style of politics, for Sarkozy was different from the Presidents in history who did abuse the power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push ahead to prolong his own presidency by force. This study focuses on that he tried to rid himself of public responsibility on existing crisis by using the guardian image of the national interest, in order to take advantages to restructure the political agenda. His leadership of crisis was developed by dividing public opinions without the duty on social integration, which is generally expected to a president. When the crisis leadership is connected to the abuse of power through the media, the values of democracy can seldom be protected.

Keywords: Nicolas Sarkozy, Image Politics, Crisis Leadership, Primary Definer